

# 『참된 교회와 경건한 기도』

강성대 목사 (함양 민들레교회)

## I. 서론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방언기도, 릴레이기도 그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각 기관별로 더 많은 기도회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지난 세기 동안에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온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러한 기도회는 계속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우리 교회들은 교회의 정체성마저 상실해 가고 세속화의 물결에 대책 없이 오염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의 혼란은 곧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혼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곧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 믿음과 신앙을 측량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1)</sup> 결국 우리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나아질 수 없고, 기도만큼 더 좋아질 뿐이다.

지난날의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 부흥해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경건하지 못한 기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도 역시 기도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연구와 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실천이다’라는 말로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기보다 기도의 행동으로 몰아 갈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기도가 단순히 부르짖음이나 간청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기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참되고 ‘경건한 기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우리들의 기도를 다시금 돌아보는 성경적인 점검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인간적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sup>2)</sup>이라는 측면에서 기도의 신학적 이해와 종교개혁시대 기도의 사람이요 신학자였던 루터와 칼빈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논문과 저술들을 살피면서 탁월한 기도의 영성으로 살았던 개혁자들의 경건한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데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 1. 기도에 대한 정의

---

1) 슐라이에르마허는 “경건함과 기도는 사실상 같으며 하나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영향으로 독일 어권에서는 기도가 ‘경건성을 재확인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표지’라는 입장이 정착되었다.  
2) 기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당신을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하신다. 즉 기도는 이와같이 은혜의 방편이다. G. Ebeling, Dogmatik des christlichen Glaubens I, Tübingen, 1979 208p

### 1) 일반적 정의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sup>3)</sup> 우리말에서 기도(祈禱)라는 단어는 한문에서 온, “빌 기(祈)”, “빌 도(禱)”로 되어 있는데 두 단어 모두 다 “~에게 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빈다”는 의미로 우리가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 2)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제 98 문답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신 ‘주기도’를 비롯하여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서도 기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청해야 한다.

## II.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용어들

### 1) 구약성경에 기록된 용어들

A. 구약성경에서 ‘빌다’, 혹은 ‘기도한다’는 의미로 가장 유사한 경우는 “아타르: עָתָר”인데 “간구하다(pray)”라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창25:21). 비슷한 단어는 “팔랄: פָּרַר”인데 이 단어는 주로 히트파엘로<sup>4)</sup>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중재하다(intervene)”, “기도하다”(pray)라는 의미이다 (창20:7, 17, 민11:2), 그리고 두 단어 다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어들이 기도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즉, “팔랄: פָּרַר”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경우가 나타나고 (민11:2, 21:7), 또한 “아타르: עָתָר”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B. 또한 개역성경에서 “기도하다”로 번역된 “카라: קָרָ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부르다, 소리치다”(call, cry out) 라는 의미이다(신4:7, 렘33:3). 이 단어는 하나님께 비는 태도와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께 인간은 간절히 소리를 내어 부르고 소리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른 자세이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C. 유사하게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샤알: שָׁאַל”이라는 단어도 자주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묻다”(수9:14, 샯1:1)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분의 뜻을 “묻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기도한다”(삼상1:17)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아크: צָעַק-소리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때는 주로 여호와께 “부르짖다”(קָרָא 시107:13, 19, 142:2,5)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3) 위키백과사전

4) 히브리어 동사의 한 형태로 이것은 재귀적 혹은 상호작용적 의미를 갖는 동사형이다. 반복적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피엘형의 행동을 나타낸다. (예; 삼하22:26, 시18:25,26)

D. 비슷한 단어인 “차아크: קצץ” 역시 여호와께 “소리치다”라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시77:2, 88:2, 107:6, 28) “부르짖다”라는 또 다른 단어로 “샤바아: שָׁבָ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시18:7, 30:2, 합1:2), “은혜를 구하다”라는 의미로 “하난: הָנַח”이 히트파엘 형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주로 “간구하다”(왕상8:33)라고 번역 되었다.

E. 또한 명사형으로 “기도” 혹은 “간구”라고 사용된 경우들도 있다. 이 경우는 “테필라: תְּפִלָּה”는 주로 “기도(prayer)”, “테히나: תְּהִינָה”는 “부탁을 탄원하는 것”(supplication for favor)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왕상8:28, 38, 45, 대하6:19,39, 시65:2) 혹은 비슷한 의미로 “타하눈: תַּחֲנוּן”도 사용되는데 동사형 “하난: הָנַח”의 명사형이다.(대하6:21) “간구”혹은 “기도”라는 의미인 “미세알라: מִשְׁעָלָה” 라는 단어도 사용된다.(시20:5) 그리고 “부르짖다”는 동사형의 명사형인 “부르짖음”이라는 의미인 “리나: לִנְיָ”도 사용되었다.(대하6:9), 또한 아람어가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첼레: צִלָּה”(스6:10, 단6:11; pray)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되었다.<sup>5)</sup>

구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기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묻고, 탄원하고, 간구하며, 간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중심으로 긴밀한 삶의 관계』를 잘 드러내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셨다.

## 2) 신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용어들

A.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기도’ 혹은 ‘기도하다’란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명사 「프로슈케: προδευχή」로서 36회 사용되었고, 그 동사형인 「프로슈코마이: προσεύχομαι」는 85회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견된다.<sup>6)</sup>

B. ‘간구’로 번역된 명사 「데에시스: δέησις」는 18회 동사형인 「데오마이: δέομαι」는 11회 사용되었는데 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프로슈케’가 주로 일반적인 요청을 가리킨다면 ‘데에시스’는 특별한 요청을 말할 때 사용되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일(롬1:10), 또 그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살전3:10)을 개역한글이나 개역개정판에 ‘프로슈케’와 ‘데에시스’를 함께 언급할 때에 ‘프로슈케는’ ‘기도’로, ‘데에시스’는 ‘간구’로 번역하고 있다.

C. ‘구하다’, ‘요구하다’의 뜻을 가진 「아이테마: αίτημα」, 「아이테오: αίτηέω」가 있다. ‘아이테오’는 신약에서 70회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마7:7,(구하라) 21:22, 요일5:15(구하는 바를)등이다. ‘아이테오’의 명사형인 ‘아이테마’는 신약에서 3회 나오는데, 기도의 의미로 사용

5) 이학재. 그말씀, 두란노. 2009. 3월호, p,9-11.

6) 편집부. 그말씀, 두란노. 2009. 2월호. p,8-9.

된 것은 빌4:6과 요일5:15이다.

D. '~대해 간구하다'로 번역된 "엔퉁카노: έντυχάνω"와 "엔투스: άντευξις"가 있다. '엔투스'는 딘전2:1과 4:5에만 나온다. '엔퉁카노'는 롬8:26,27,과 히7:25에서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 되었다. 롬11:2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한 것에도 '엔퉁카노'가 사용되었다. '엔퉁카노'는 원래 단순히 '사람을 만나다', '사람을 데리고 그 곁에 오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서 말을 주고받는다. 여기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의 사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 있는 자 특히 왕께 대하여 무엇을 구하는 의미로 발전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가진 엄청난 특권과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왕이 가진 모든 힘과 위대함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 Ⅲ.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의 이해와 실천

이장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시대 그 긴박하고 힘겨운 진리의 싸움을 싸웠던 개혁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이해하였고 그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루터와 칼빈 그리고 존 녹스 순으로 살펴 볼 것이다.

#### 1. 기도의 신학자 루터 (1483~1546)

마틴 루터는 위대한 개신교 종교 개혁자였을 뿐 아니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루터는 기도가 자신에게 곧 영혼의 안녕을 위한 초석이라고 했다. 앤드류 코스텐(Andrew Kosten)은 "루터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으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sup>7)</sup>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 시간씩 기도 했다고 한다.

##### 1) 기도로 시작된 종교개혁

루터는 영성, 특히 기도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면죄부와 관련해 기도에 대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을 개혁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48번 반박문에서 루터는 교황이 사람들의 기도보다 사람들의 돈에 더 관심이 많다고 지적했다.

7) 마틴루터의기도. 유재덕역. 브니엘출판사 2008. 5p

윌리엄 러셀은 "루터에게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의 기도 방식의 개혁이었다" 고 말한다. 러셀은 "요리문답식 가르침이라는 맥락에서 루터개혁 신학의 본질은 기도를 강조하는데 있다"<sup>8)</sup>고 주장한다.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대요리문답> (Small and Large Catechisms), 1529.은 당시 회중교육 행태를 개혁하려는 그의 오랜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 문답서들은 사람들에게 기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었다.

루터가 기도한 방식과 그가 기도했던 다양한 상황들이 기도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신학적 고찰과 만나, 어떤 면에서는 루터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루터의 신학이 포괄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루터에게 기도와 신학은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 있다. 루터 신학의 배경을 제시해 주는 기도는 종교개혁의 출발이 되었다.

## 2) 루터에게 있어 기도의 의미

### A. 의무로서의 기도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주기도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는 우리의 의무" 라고 강조했다. 루터는 기도가 무엇보다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의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를 선택사항으로 여기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닌 듯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며, 우리가 그 명을 관과 했을 경우 기뻐하지 않으시고 벌하신다고 경고하셨음을 알아야 한다. 루터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덧붙였다. "기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고 했다.<sup>9)</sup>

### B. '노동 중의 노동'으로서의 기도

루터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은 '노동 중의 노동'이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의 심약함과 스스로 느끼는 무가치함에서 비롯되는 의심과 불평불만에 맞서 장대한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고된 일인지 알았다. 그는 "기도보다 더 큰 노동은 없다"고 고백했다. 실로 루터에게 기도는 설교보다 더욱 고된 노동이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말씀을 선포하거나 교회의 다른 의무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사실 능동적이기 보다 수동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가르친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힘들다."

나아가 루터에게 '노동 중의 노동'인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불신자들은 "결코 기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8) William R. Russell, "Luther, Prayer and the Reformation," Word & Word 22, no. 1 (2002) p.49

9) Ewald M. Plass 편집, What Luther Say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9) p1075

### C.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기도에 대한 루터의 소박한 인식도 주목할 만하다. 루터에게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루터가 한 번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곧 기도다. 하늘의 크신 왕이 비천한 벌레와 같은 우리에게 몸을 굽혀 우리가 그분께 입을 열게 하신 것이야말로 놀라운 영광이다. ...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더욱 영광스럽고 귀하다" 고 단언했다.

## 2). 루터에게 있어 기도의 동기

루터는 기도를 무엇보다 의무로 인식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그의 반응은 단호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사람이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기도를 엄히 명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선포한다.

셋째, 우리의 필요와 괴로움이 우리 어깨를 너무나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그 짐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한다.

넷째, 이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참된 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선한 것을 베푸신다.

하지만 프리드만 허버트는 "루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기도의 근거로 삼았다" 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루터의 기도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명령과 약속이다.<sup>10)</sup>

## 3). 루터에게 있어 기도의 방식

루터는 즉흥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의 여부,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등 기도의 방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을 제시했다.

### A. 즉흥적인 기도

후일 <탁상담화> 로 남은 대화 중 하나에서 루터는 교황이 명한 기도 방식에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교황이 명한 기도는 형편없는 양심의 고문일 따름이며 중언부언 단어의 나열이다. 그러한 점에서 루터는 로마서 12장 7-16절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했다. "기도는 사전에

---

10) Friedemann Herbart, "The Role of the Lord's Prayer in Luther's Theology of Prayer" Lutheran Theological Journal 18, no.1(1984):p.7

준비된 문구 없이 마음에서부터 즉흥적으로 나와야 한다. 마음의 열심에 따라 자신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는 심지어 "마음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시편을 읽기만 하는 이들"을 책망했다. "입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의 소원과 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따라서 참된 기도란 본질적으로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기도의 본질이자 정수는 고양된 심령임을 말한다. 심령을 올려 드리지 않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즉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선한지, 마음으로부터 나온 기도인지 아닌지를 물으시기 때문이다."

## B. 원고에 따른 기도

루터는 즉흥적인 기도를 옹호하면서도 기도문 사용 또한 권장했다. 예를 들어 <소요리문답> 중 "식사기도: 가장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의 식탁에서 복을 구하고 감사를 드리도록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장에서 그는 다음의 지침을 전하고 있다. 자녀와 온 가정이 식탁에 모였을 때 경건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한다.

"오 주님, 모든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어 주기도문을 하고, 다음의 기도를 한다.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의 풍성한 선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같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독자들에게 몇 가지의 기도양식을 제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마틴 루터의 기도>에서 페터 베스켄도르프( 루터가 이 책을 헌정한 그의 전속 이발사)에게 다음의 조언을 전했다. 십계명과 그리스도의 말씀 등을 암송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에 마음이 집중 되거든,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거나,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서서, 최대한 간결하게 말하거나 생각하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게나.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 데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손을 펴고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 명하셨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 가르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이 땅 모든 주님의 성도들과 그리스도인과 함께 기도합니다."<sup>11)</sup>

루터는 자신의 이발사에게 주기도문의 일곱 가지 간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각 간구의 마지막에 기도문을 제시했다. 하지만 페터가 오직 이 기도문으로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덧붙이기를 잊지 않았다. 루터는 정해진 양식에 갇히거나 얽매이지만 않는다면, 기도문 암송이 나쁘다고 여기지 않았다. 본인은 자유로운 기도를 선호한 듯했지만 기도양식의 사용 또한 허용했다.

---

11) LW 43:194-195중, Luther, "A Simple Way to Prayer."

#### 4). 루터의 기도의 자세 제안

전속 이발사에게 전하는 루터의 조언에서 우리는 루터 본인이 손을 모으고 하늘에 시선을 두고 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서건 무릎을 꿇진 않되 드리건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 신체의 자세에 대하여는 금하거나 필요하다고 명하는 바가 없다. 고개를 들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고 손을 모으고 가슴을 치는 등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sup>12)</sup>

또한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가장이 어떻게 자신의 가정에 아침과 저녁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글에서, 루터는 후일 종교 개혁자들이 거부했던 십자가 성호를 그으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십자가 성호를 긋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고 말하라" 고 제안하기도 했다.

#### 5). 루터에게 음악 과 기도

루터는 또한 음악가였다. 작곡가이자 가수였던 그는 음악을 활용해서도 기도했다. 이런 점에서 '디에나 카'<sup>13)</sup>는 "음악을 기도로 사용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던 (어떤 사람도 합당에게 기도하면 동시에 합당하게 찬양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츠빙글리와 루터를 대조한다. 루터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6) 기도의 동반자: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루터의 기도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하면서 루터는 거듭 주기도문으로 돌아갔다. 반대로 우리 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중 상당수가 주기도문의 간구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루터의 기도신학 전체가 주기도문에 대한 그의 이해를 기초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지극히 소중한 시편보다 더 훌륭한 기도, 최상의 기도" 라고 불렀다. " 이 땅에서 매일의 주기도문보다 더 존귀한 기도는 없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는 탁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기도문은 루터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 기도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이 계명과 약속 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우리가 사용할 말을 주셨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돌아보시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그 어떤 기

12) Plass. What Luther Says, P. 1087.

13) Carr, "A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of Prayer in the Life of Martin Luther" P.624



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다."

나아가 루터는 <탁상담화>에서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기도보다 뛰어난 기도, 가장 높으신 주님이 가르치신 가장 높은 기도 그 안에 모든 영적, 물질적 필요가 담겨 있다. 모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탁월한 위로가 된다."<sup>14)</sup>

때문에 루터가 주기도문을 기도의 기초로 삼는 동시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루터는 이렇게 단언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때고 주기도문으로 합당하게 기도하거나 주기도문의 일부를 사용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이 이 평범하고 소박한 그리스도의 기도로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 7). 기도와 삼위일체

루터는 기도의 삼위일체적 측면을 강조했다. 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 8). 루터의 기도생활

기도에 관한 루터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다. 그는 해당 주제에 대해 추측성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린 삶의 강력한 본을 제시했다.

루터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했다. 학생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쳤고 기도의 삶을 보였다. 루터의 친구였던 비에트 디트리히는 루터에 대해 "심각한 때에 이 사람이 보여 주는 탁월한 확고함과 행복한 태도, 신앙과 소망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몰두함으로써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을 연마한다. 그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적어도 세 시간을 기도에 헌신한다."고 기록했다.

루터가 남편, 아버지, 목사, 교사, 작가로서 수많은 일에 몰두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코스텐은 "종교적으로 가장 분주한 때도 하루 평균 두 시간씩 기도했다" 고 밝혔다. 종교개혁의 승리와 업적의 핵심이 기도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루터는 많이 기도했기에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는 만사를 기도를 통해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루터의 끈질긴 기도생활에 주목해야 한다. 루터는 밤낮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기도가 삶의 중심축이었다. 일을 할 때도 기도했다. 코스텐은 "그의 일과가 기도였고 기도가 그의 일과였다" 고 밝힌다. 루터의 삶 곳곳에 기도가 스며 있었다. 그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였다. 루터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듯이 기도했다. 그의 기도생활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의지했는지 보여 준다. 그는 오직

14) Herbart, "The Role of the Lord's Prayer in Luther's Theology of Prayer" p.6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주님은 마틴 루터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지만, 그의 삶과 수고와 기도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고 있다.

## 2. 존 칼빈의 기도(1509-1564)

###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칼빈은 제네바의 개혁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에게 기도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었다. 그렇기에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단순한 신자들의 필요에 따른 구함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거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 장에서 기도에 관한 칼빈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기도의 목적과 방법, 규칙은 무엇인지와 함께, 어떻게 기도를 삼위일체의 토대 위에 세울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가 참된 경건을 도모하게 해주는지 살펴볼 것이다.

칼빈은 바른 기도를 '특별한 은사'로 여길 만큼 기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웠지만, 이 기준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세우신 기준임을 확실히 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죄악 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으나,<sup>15)</sup>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기도하도록 돕기를 기뻐하신다. (롬 8:26)

칼빈이 기도의 교리보다 기도의 실천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은 칼빈의 신학이 얼마나 실천적이었는지를 보여 준다. 칼빈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정수였다. 학술적 문제가 아닌 고귀한 선물이었다. 그는 설교, 주석서, 특히 시편 주석과 <기독교 강요> 중 배틀스-맥닐 Battles - McNeill 판의 70페이지에 달하는 긴 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도에 대해 열정적으로 기술했다. 편집인 존 T. 맥닐 John T. MacNeill은 이렇게 밝혔다. "매우 건강하고 열정적인 어조로 기록된 이 깊이 있고 방대한 장은, 역사적으로 알려진 기도에 관한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sup>16)</sup>

### 1. 칼빈의 기도의 정의와 효과

<기독교 강요> 마지막 개정판에서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통로이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에 대해 간

15) John Calvin, Commentaries of Calvin(GrandRapids; Eerdmans, 1948-50), 렘29:12에 대하여 《칼빈주석》(성서원역간).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편집; Ford Lewis Battles 역(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2:850 n1(이하 Inst. 로 표기) 《기독교강요》(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역간)

구함으로써... 자신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경험하는 것이다."<sup>17)</sup> 그는 다른 곳에서는 기도를 "우리의 바람과 기쁨, 탄식, 즉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하나님과의 교제" 라고 말했다.

칼빈은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거룩하고 친근한 대화로 인식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믿는 자가 하나님께 비밀을 털어놓는 대화, 나아가 친밀한 언약의 대화다. 기도는 "내밀한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그 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이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제하며, 동시에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이 투명하게 드러남을 느낀다. 겐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바람, 탄식, 불안, 두려움, 소망, 기쁨을 아버지의 무릎 위에" 내려놓는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한 조각 한 조각씩 맡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매듭을 하나님이 푸시도록, 그의 품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을 모두 쏟아내도 좋다고 허락" 받았다. 기도는 영혼의 분출이요, 경건의 가장 깊은 뿌리이며, 확신의 토대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된 믿는 자의 생명줄이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반대하는 견해가 두 가지 정도 있다.

첫째, 믿는 자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자기 자신의 의지는 포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그러나 칼빈은 이에 대하여, 믿는 자는 복종하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도록 청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결국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일하게 된다고 답했다.

둘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경건의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만드셨다고 답했다. 우리의 기도는 섭리의 장애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과 함께 수단도 함력하도록 계획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수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 기도 에 대한 응답으로 또한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즉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영원 전부터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구하고 받는 방법이다. 칼빈에 의하면 기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 첫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둘째, 하나님은 선하신 기쁨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포함해 만물을 주관하신다. 기도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인간의 의지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일부라도 찬탈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는 영원한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도는 효과적이다. "첫째, 하나님이 그 신적인 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예상하

---

17) Inst. 3. 20.2

시고 둘째,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백성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난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분이시다.

브루스 웨어는 효과적 기도에 관한 칼빈의 관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따라 뜻하신 일과 다르게 행하도록 강요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와 능력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다."<sup>18)</sup>

궁극적으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곧 "택하신 자들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인자한 은혜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 2. 칼빈의 기도의 목적과 방법

칼빈은 기도에는 최소 여섯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밝힌다.

1.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하여.
2.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직 옳은 것만을 전심으로 구하기 위하여.
3. 은총과 우리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겸손과 감사로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4. 구한 것을 받았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기 위하여.
5.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뻐하는 합당한 마음을 우리 자신 안에 불어넣기 위하여.
6.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를 확증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증거 하기 위하여.

이 여섯 가지 목적의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적들은 성경적인 방식대로 추구해야 한다. 칼빈은 믿음과 기도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했다. 믿음은 기도의 양분과 추진력이 되고, 기도가 믿음의 양분과 추진력이 된다. "참된 믿음의 연단은 기도에 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을 취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 3. 칼빈의 기도의 규칙

---

18) Bruce A Ware, "The Role of Prayer and the Word in the Christian Life According to Jone Calvin," *Studia Biblica et Theologica* 12(1982): P.90.

칼빈에게 기도는 딱히 규율이 없이 행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아니었다. "하루 일정 시간을 기도하도록 정해 두지 않으면, 우리는 헛소리 잊어버리게 된다." 칼빈은 믿는 자들이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규칙을 제시했다.<sup>19)</sup>

첫째는 참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자에게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갖춰야 한다." 우리 기도는 그러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참된 간절함과 회개의 마음이다. 우리는 "진정한 결핍감과 참회의 마음으로," "거지의 태도" 로 기도해야 한다.

세 번째 규칙은 참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다. 참된 기도는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확신을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한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의지해 영과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규칙은 참된 소망의 확신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확신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일어난다.

#### 4. 칼빈의 기도의 삼위일체적 초점

칼빈은 기도의 삼위일체적 측면을 강조했다.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어, 아들을 통하여 가능해지며, 성령님의 마음을 통하여 발현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이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고, 약속을 주심으로 그 초대를 더욱 공고히 하신다. 그리스도를 떠난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주재님께 하나님께 이야기하려 드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다." 인간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을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약속은 언제나 우리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다. 오히려 자신을 먼저 내어 주시며,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기도하라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칼빈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전혀 없다. 보좌에는 오직 진노, 심판, 두려움만이 남는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성령님도 믿는 자의 기도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칼빈은 밝혔다. "성령님은 기도 중에 우리의 교사가 되시어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단련하신다.

---

19) Inst. 3.20.1-16 참조

"20)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하신다.21) 칼빈은 성령님이 "우리 육신의 능력으로는 좀처럼 충족시킬 수 없는 확증과 바람, 탄식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 고 설명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러한 기도가 "하늘을 뚫는 열정의 기도" 가 되게 하신다.

## 5. 칼빈의 경건의 주된 요소로서의 기도

칼빈에게 경건(pietas)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한 태도와 행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유구하고 주요한 믿음의 실천이자 경건의 주된 요소로 이해했다.

기도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준다. 기도는 사적인 경건과 공적인 경건을 모두 표현한다. 헤르만 셀더르하위스 Herman Selderhuis 는 칼빈의 시편 주석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22) 결과적으로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경건한 삶의 방식이 발전한다. 기도는 자기애(自己愛)를 줄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경건해질수록 더욱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물리적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한 뜻과 한 목적을 품도록 묶어 준다. 최후의 만찬과 같이, 기도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들어올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훈련을 받고 굳건히 서야 한다.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머물게 해준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 기도는 거절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통로다.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외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경건함으로 도우심을 구한다.

## 6. 거룩하고 귀한 교제로서의 기도

칼빈은 저서 곳곳에서 기도신학을 제시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주권적인 공간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한 복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는지 분명히 듣고도 보물을 땅 속에 방치하는" 사람이다.23)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속여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들이나 다름없다.

칼빈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길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결론을

---

20) Inst, 3.20.20. 참조

21) 롬8:26

22) Selderhuis,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P.224-226

23) Inst. 3.20.1.

내렸다. 물론 때로는 낙심이 우리를 짓누르기도 한다. "우리의 전쟁은 결코 멈추지 않으며 수 많은 공격이 날마다 찾아온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간구를 두세 번이 아니라 필요 할 때마다 백 번, 천 번씩 해야" 할지라도 더욱더 우리 자신을 쳐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신속히 응답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춘다면, 이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sup>24)</sup>

칼빈에게 궁극적으로 기도는, 천상의 행위이자, 확실한 종말론적 소망을 기초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영광스런 보좌 앞에서 나누는 거룩하고 귀한 교제였다.

### 3. 기도 신학자 존 녹스 (John Knox, 1514-1572)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이자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녹스는 기도의 신학자였을 뿐 아니라 기도의 실천가였다. 녹스는 교리를 삶에 적용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했다. 그의 <기도에 대한 논문> 의 말미에 녹스의 경건함을 상징하는 기도가 실려 있다.

#### 1) 녹스의 기도신학

기도신학은 <기도의 참된 본질에 관한 선언> (A Declaration of The True Nature of Prayer) 라고도 불리는 <기도에 관한 논문> (A Treatise on Prayer) 또는 <기도에 대한 고백과 선언> (A Confession, and Declaration of Prayer)<sup>25)</sup> 에 가장 잘 드러난다.

<기도에 관한 논문>은 '(1) 참된 기도란 무엇인가 (2)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3)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부제가 보여 주듯 기도에 관한 세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글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녹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우리는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밝힌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같은 근거로 기도 가운데 회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그는 기도중의 외식을 책망하고, 네 번째 부분에서는 불신앙을 꾸짖는다. 다섯 번째 부분은 참된 기도는 "우리의 중보자, 대언자, 친구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아는 지식" 에 입각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고찰과 적용을 실었다.

#### 2) 녹스의 기도에 대한 정의

##### A. 참된 믿음의 증거로서의 기도

24) 시편22:4에 대한 Commentary: Wallace, Calvin, Geneva, the Reformation, P.214

25) John Knox, "A Treatise on Prayer, or a Confession, and Declaration of Prayer," 1559.

녹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기도, 즉 완벽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문을 시작한다. 여기서 '완벽한'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옳다는 의미에서의 완벽함이다. 기도는 "참된 믿음에서 뺏어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완벽한, 즉 옳은 기도가 불편한 사람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기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고유한 열매다. 계속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모른다. 녹스가 주장하듯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슨 덕이 있든 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는 분명한 표징이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자는 완벽한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다. 불이 타오르면 열기가 느껴지고, 등불이 탈 때 빛을 발하듯,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정적 기도가 따른다."

녹스는 참된 믿음과 완전한 기도 간의 긴밀한 관계를 인식했다. 완벽한 기도는 참된 믿음에서 비롯되고, 참된 믿음은 완벽한 기도에서 나온다. 이처럼 기도는 참된 믿음의 증거다.

## B.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밀한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

녹스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밀한 대화로,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고, 역경 중에 도움과 의지를 구하고 바라며, 기도 응답으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우리의 비탄과 슬픔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소망, 그의 놀라우신 이름에 대한 찬양이 포함된다."<sup>26)</sup>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요 그 안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녹스는 이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경외심으로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휘방하는" 것들로부터 부지런히 도망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 하고 "그분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고 우리 양심에 위로가 되는" 것들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헛되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는 계속 죄 가운데 행하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완전한, 혹은 신실한 기도를 하기 전에는 먼저 참된 회개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 3) 녹스의 기도를 위한 독려가 필요함.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거나, 기도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내가 큰 고통을 당하고 범죄하였으나 이제 나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달려가라고 조언한다. 나아가 녹스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두 가지를 언급하며 기도를 독려

26) Knox, "A Treatise on Prayer," P. 73-74



한다. "우리가 지은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처 입은 양심의 슬픔을 달래 주고 기도 할 용기를 주시려고 가장 위대한 의사가 두 개의 봉대를 주셨다. 바로 명령과 약속이다."

#### A. 하나님의 명령으로서의 기도.

녹스는 "기도하라는 명령 또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심겨 있고 반복되고 있는, 보편적인 명령이다." 고 기록했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몇 구절을 인용했다. 바로 시편 50편 15절, 마태복음 7장 7절, 26장 4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2장 1-2절, 8절이다. 녹스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은 격려이자 기도해야 할 이유였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우리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녹스는 이 점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을 들어 설명한다.

“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부정형 명령이며, ‘기도할지니라’는 긍정형 명령이다.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도하지 ‘않는’ 죄는 도둑질하는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둘 다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을 범했기에 똑같이 유죄인 것이다.”<sup>27)</sup>

#### B.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에 눌려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용기를 얻어야 한다. 우리의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녹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했다.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님이 육신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지실 것을 고대하며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나아가 녹스는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4) 녹스의 기도 장소와 시간, 대상

#### A. 기도의 장소.

녹스는 기도의 장소, 시간, 대상이라는 사안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개인기도의 장소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명하셨지만" 그것이 어떤 필수적인 장소나 구체적으로 지정된 장소를 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교제를 구하려면 항상 실제로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녹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곳을 기도 장소로 택해야 하며, 기도할 때 우리 머리에서 모든 헛된 생각을 쫓아내야만 한다" 는 뜻을 담은 비유로 이해했다.<sup>28)</sup>

27) 브라이언 G. 나자푸르 《기도의 신학자》, 「기도특강」 이해림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4), P.69

28) 같은 책, P.75.

## B. 기도의 시간과 대상.

기도 시간과 기도의 대상에 대한 녹스의 관점은, 그가 다른 성직자 네 명과 함께 준비한 <제네바의 잉글랜드 회중이 사용한 기도양식과 성례 집전 등>에서도 드러난다. 비록 녹스가 단독 집필하지는 않았어도, 그가 제네바에서 회중에게 직접 적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녹스의 기도신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1564년 스코틀랜드 교회는 이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한 후 동일한 기도 양식을 승인하고 수용했다. 이후 이 책은 <공동 전례서>로 알려졌다. <공동 전례서> 역시 녹스의 기도신학 고찰에 좋은 자료다. 이 역시 녹스가 단독 집필하지는 않았지만, 데이비드 레잉의 말대로 "녹스가 집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해도 녹스가 승인한 책이었다."

<공동 전례서>에 실린 일부 기도의 제목은 기도 시간과 대상에 대한 녹스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다.

- \*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 \* 설교 후 기도의 또 다른 방식.
- \* 스코틀랜드 교회들이 프랑스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사용한 기도, 주로 성만찬 집전에 사용.
- \* 프랑스인들의 폭정에서 우리를 건지신 후 하나님께 드린 감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평화 지속을 위한 기도 포함.
- \* 병든 자를 방문했을 때 하는 기도.
- \* 개인 가정에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사용하는 기도의 양식.
- \* 아이가 공부하기 전에 하는 기도
- \*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
- \* 고통중의 기도.
- \* 왕을 위한 기도.<sup>29)</sup>

## 5) 녹스의 경건과 기도 실천

녹스에게 경건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였다. 이 진리는 <공동 전례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항상 드려야 할 경건한 기도"와 "경건한 기도"라는 제목의 두 가지 기도가 실려 있는데, 이 <전례서>를 집필한 이들이 기도의 경건함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보여준다. 사실 <기도양식과 성례 집전>에 기도를 실은 목적은 "기도와 다른 전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 사람들의 경건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녹스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혼란이 아닌 평온을 바랐다. 그는 여왕의 나라뿐 아니라 여왕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후일 녹스는 여왕을 반대하며 여왕을 위해 기도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여왕의 악함을 더는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1571년 녹스는

---

29) Knox, "The Book of Common Order," Works 6:298-380 중.

여왕을 매도하고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세인트 길스의 강단에서 고소를 당했다. 녹스는 "삽을 삽이라고 부르듯, 악을 악이라고 담대하게 말했다" 라고 대답했다. 여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죄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곳에서 여왕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왕이 아니기 때문이요. 나는 이들에게 내가 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며, 내 혀를 은이나 세상의 유익을 위해 팔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소."

녹스는 "'내게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주소서' 라고 기도했고,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은 '나는 유럽의 모든 군대를 합한 것보다 존 녹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고 했다."

녹스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 존 하위(John Howie)는 녹스가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기도에 매진했다고 기록한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랑스런 예수님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주님, 당신께서 구속하신 당신의 교회에 자비를 베푸소서. 고통받는 이 나라에 화평을 주소서.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갈 신실한 목회자들을 일으키소서. 주님, 당신의 진노와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증오하도록 하소서.'

1572년 11월 24일 녹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와 동시대 인물인 토마스 스미턴(Thomas Smeaton)은 녹스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그렇게 작고 연약한 육신에 그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영이 담긴 사람을 보지 못했다."

## IV. 결론

지금까지 성경에서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실천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경건한 기도' 로의 성숙이 요구 된다.

우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 하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sup>30)</sup>이라는 칼빈의 신학적 통찰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나타난 기도의 성향들을 살펴보면 기도에 열심을 품고,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반응 하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성향을 보여 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수단이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친밀한 삶의 교제요, 거룩하고 진실한 내면의 은밀한 대화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위하여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

30) Selderhuis, *Calvin's Theology of the Psalms*, P.224-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루터가 기도를 계명과 의무로, 그리고 노동중의 노동으로 이해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열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기도가 삶의 중심축이었던 개혁자 루터의 그 많은 기도에 헌신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경건한 기도였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기도'로서 완벽한(옳은) 기도 의 필요성을 강조한 존 녹스가 참된 믿음에서 뺏어 나온 가지로 표현한 기도가 경건한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에서 자라도록 요청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3:5)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대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은사운동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를 혼잡케 하지 말아야 한다.

경건한 기도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점차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 뜻을 이루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날 수가 다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아는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간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2015. 5.11

발제자 : 강성대